

종교개혁의 복음이해: 칭의론의 중심성과 네 가지 “오직” 원리들(Sola Principles)

박 일 영

(부교수·조직신학)

〈 목 차 〉

- I. 서론
 - II. 칭의론에 대한 오해와 도전들
 - 1. 율법주의
 - 2. 사회 행동주의(민중신학)
 - 3. 자유주의적 문화신학
 - 4. 영적 열광주의-오순절 성령운동
 - III. “오직” 원리들(Sola Principles)
 - 1. 오직 은혜
 - 2. 오직 믿음
 - 3. 오직 그리스도
 - 4. 오직 성서
 - IV. Conclusion
 - V. 결론
 - ※ 참고문헌
-

神學과 信仰

I. 서론

한국 개신교회들 중 가장 작은 교파인 한국루터교회는 그 정체성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다. 샤머니즘, 불교, 도교, 유교 등 기독교 전래 이전의 전통적인 한국 종교들, 그리고 200여년 전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와 100여년 전부터 소개된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로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기독교 교파들의 다원주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도 가장 짧고 규모도 가장 작은 한국의 루터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에 루터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다.¹⁾

우선 우리는 루터란의 정체성을 신앙고백에서 찾는다. 그리고 루터교 신앙고백의 중심은 칭의론이다. “칭의론은 다른 여러 교리들 중 하나의 교리(a doctrine)가 아니라 교리 중의 교리(the doctrine)이다. 칭의론은 비판적 원리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복음적 기초와 신앙의 내용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²⁾ 이 칭의론의 중심성이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칭의의 교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줄곧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을 받거나 왜곡되거나 오해를 받아왔다. 칭의론의 중심성을 도전하고 거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 왔다. 더욱 더 심각한 현상은 이 칭의론의 중



1) Won Yong Ji, "Witnessing to Christ in a Pluralistic Age: Theological Principle and Practice," *Concordia Journal* (July 1990) 240

2) Carl E Braaten, *Justification: The Article by which the Church Stands or Fal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p 82.

심성이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설교자들이 그 교리를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혹은 지나간 시대에나 적절한 것으로 소개할 뿐 오늘날 청중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향에서 찾을 수 있다.”³⁾ 바로 이 때문에 칭의론의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루터교의 신앙고백적 신앙은 다시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회복해야만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칭의론의 재발견으로 가능케 된 것이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역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급속한 성장을 자랑하여 왔지만, 그와 함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켜왔고, 이제 그 심각성을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원용 박사는 그 문제점들을 “내적인 연대감이 결여된 외적 성장, 참 기독교의 맛을 상실한 수적인 성장, 성직자와 교회 계급의 권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기복 신앙, 현세의 번영만을 관심하는 신앙, 그리고 성과 속의 이분법적 사고”⁴⁾ 등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동시에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논자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던 칭의론의 중심성에서 그 기준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칭의론의 중심성이 경시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을 칭의론의 빛에서 비판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주의적 율법주의적 신앙, 사회 행동주의적 신앙, 진보적 문화적 신앙, 그리고 열광주의적 신

3) Alister E McGrath, *Studies in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p. 358

4) Won Yong Ji, *A History of Lutheranism in Korea: A Personal Account* (Seoul: Concordia Sa, 1988), p. 61

신학과 신앙

양) 물론 이들 유형들이 각기 갖고 있는 힘과 장점, 혹은 특별한 시기에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점들은 적지 않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위의 표현들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규정짓는 것에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들 유형 속에 잠재해 있는 반-칭의론(anti-justification)적 요소들을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반-칭의론적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근거를 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신본주의를 주장하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상 늘 인간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고, 이러한 경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칭의론의 근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칭의론은 항상 인간의 방식, 인간의 상식들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규범이다. 그리고 이러한 칭의론의 규범적 특징은 네 가지 “오직 ... 만으로”(sola gratia, sola fide, solo Christo, sola scriptura)로 표현된 원리들로써 강조되어 왔다. “루터교의 ‘교의적 제안’의 전체 의미는 이들 오직의 의미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오직을 생략하면 복음 그 자체가, 단지 루터교적 복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그 지체들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이 배반 당하게 된다.”⁶⁾ 제 III장에서는 이들 배타적 원리들(sola gratia, sola fide, solo Christo, sola scriptura)을 칭의론



5) 참고,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서울 전망사, 1992), 한국교회사학연구원(편), 『한국기독교 사상』(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6) Carl E. Braaten,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p. 35

을 반대하고 도전하는 입장에 대한 옹호의 준거틀로써 사용하며 칭의론의 바른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각 원리 자체가 별도로 상세히 다룰 수 있는 큰 주제이지만, 이 글은 목적은 각 개념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아니라 칭의론을 오해하고 도전하는 목소리에 대해 칭의론의 바른 구조를 살펴보자는 데 있다.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칭의론이 바른 모든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네 가지 배타적 원리들의 해석에서 찾고자 한다.

II. 칭의론에 대한 오해와 도전들

마틴 챔니츠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교회 전체 역사에서 이 조항[칭의론]의 경우에 바른 용어 사용이 가볍게 보고 무시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해를 교회에 끼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든 시대에 칭의론에 관한 건전한 교리의 빛이 처음에 약화되고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모호하게 되고 마침내는 거의 상실케 되거나 소멸된다. 주로 성서적인 단어들의 참 뜻에서 떠남으로써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⁷⁾

아이러니 하게도 칭의론의 중심성을 재발견함으로써 시작된 개신교 교회 안에서 칭의론이 약화되고 모호하게 됨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칭의론의 중심성은 도전 받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난받기까지 한다. 유명한 카톨릭의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은 카톨릭 측에서의 오래된 칭의론 비난을 반복하고 있는데, 즉 칭의에 관한 종교개혁의 교리는 많은 교회 전통들 가운데서 단지 한 교리에 불과한 것, 교회의 통일성에 의해 꿰어져 있는 일련의 교리들 가운데 단지 한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그밖에도 칭의론의 중심

7) Chemnitz, Martin *Justification: The Chief Article of Christian Doctrine as Expounded in Loci Theologici* Trans and ed by J A O Preus Delpha Holleque Preu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85), pp. 61-62

신학과 신앙

성을 반대하는 많은 다른 목소리들이 있어 왔다.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자:

... 루터의 신학에는 두 가지 증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로 루터는 그릇되게 그 자신의 꼼꼼함과 비참한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투사하였다. 둘째로 루터는 바울 시대의 유대교가 편협한 율법주의적 종교를 가르쳤다고 결론지었으며, 그 율법주의를 중세 카톨릭과 동일시하였다.(James Dunn)⁹⁾

칭의 교리는 널리 받아들여진, 바울의 교리들을 묶는 원리나 통찰력이 아니었고, 그의 사상 가운데 대단히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당시의 특정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Stendahl)¹⁰⁾

루터교회 자체 안에서도 우리는 칭의론이 오늘날 세계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1963년 헬싱키에서 열린 제 4차 루터교 세계 연맹 회의는

8) Quoted in Braaten,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 37. Hans Kunag, *Justification: The Doctrine of Karl Barth and a Catholic Reflection*, trans. Thomas Collins, Edmund E. Tolk, and David Granskou (New York: Thomas Nelson & Sons, 1964), pp. 6-11.

9) Robert A. Sungens, *Not By Faith Alone: The Biblical Evidence for the Catholic Doctrine of Justification*, (Santa Barbara: Queenship Publishing Company, 1996), p. 603f.

10) Bertram, Robert W. "Recent Lutheran Theologies on Justification by Faith: A Sampling," in George H. Anderson, T. Austin Murphy and Joseph A. Burgess, eds.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p. 241.



칭의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칭의에 대한 종교개혁의 증언은 “교리화(doctrinalization), 개인화(individualization), 그리고 심령화(spiritualization)”의 삼중의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¹¹⁾ 이제 사람들은 칭의론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믿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질문, 예컨대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묻는다.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들은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¹²⁾ 무엇보다도 칭의론이 소홀히 취급되는 이유는 현대의 인간론적 강조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훈싱어(Hunsinger)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현대는 전형적으로 가능하고 의미있고, 그리고 실재하는 것의 궁극적 한계를 단지 이성과 경험에 적합한 것, 다시 말해서 현상적이고 명백한 것을 근거로 해서 확립하려 하였다.”¹³⁾ 칼 브라텐(Carl Braaten)은 이 경향을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세 가지의 사다리 혹은 탑으로 묘사하였는데, 그것은 지성주의(intellectualism), 도덕주의(moralism), 그리고 감성주의(emotionalism)이다.¹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맥그라스(McGrath)는 칭의론을 불구로 만드는 영향을 미친, 교회의 현대적 “바벨론 포로”라고 묘사되어 온 세 가지 경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신교 정통주의 안에서의 교리적 객관화(objectivization), 경건주의 안에서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그리고 계몽주의의 합리주의 안에서의 사유화(privatization)이다.¹⁵⁾

11) George H. Anderson, T. Austin Murphy and Joseph A. Burgess, eds.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p. 45

12) Braaten,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 p. 39

13) George Hunsinger, “What Karl Barth Learned from Martin Luther,” *Lutheran Quarterly* Vol. XIII, no. 2(Summer 1999) 139

14) Braaten,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 p. 118ff

15) Quoted in Braaten, *Justification*, 12.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神學의 信仰

한편 오늘날의 다원주의와 에큐메니칼 대화 역시 칭의론이 약화된 환경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카톨릭 학자인 폴 크니터(Paul Knitter)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로부터 신중심주의로 옮겨가는 진화의 한 복판에 있다.”고 말하였다.¹⁶⁾ 에큐메니칼 대화의 과정 속에서 칭의론이 주요 신학적 의제가 되어 왔고, 또 그 교리에 대한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매드슨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소위 칭의론에 대한 합의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칭의론이 축소되어 그것이 더 이상 다른 모든 교리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눈속임의 근본 진리들 문제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¹⁷⁾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오순절 운동과 해방 신학의 사회적 행동주의 역시 나름대로의 공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칭의론의 중심성을 약화시키는데 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루터의 말을 상기케 된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잃는다면 다른 오류들 혹은 종파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열광주의자들, 재세례파들, 성례주의자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교리를 옆으로 체쳐 두면서 다른 가르침들 역시 끊임없이 폐기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¹⁸⁾ 루터의 이런 지적을 오늘날 교회 상황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226ff

16) Braaten, *Justification*, p 136
 17) Meg H Madson, “The Incredible Shrinking Doctrine of Justification,” *Lutheran Quarterly* Vol XI, no.1(1997) 110



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며 오늘날의 모든 현상들을 종파나 이단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다. 전체 교회 역사 가운데는 항상 반-칭의론적 경향이 언제나 있어 왔고, 오늘날도 그 경향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칭의론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참 교회의 본질, 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고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도 이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소고의 논점이다.

이제 주요 현대 교회 가운데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기독교 신앙, 혹은 영성의 유형들 가운데서 이러한 반-칭의론적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율법주의

『루터교 사전』(Lutheran cyclopedia)은 율법주의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 (a) 은혜보다는 공적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는 것; (b) 율법의 정신보다는 문자를 강조하는 것. 현대 교회, 특별히 한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강한 율법주의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율법주의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일반적 상식에 근거한다. 이런 율법주의적 경향은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중시한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종류의 신앙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값싼 은혜”라는 표현은 강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공격받는 표현 중의 하나이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적 왜곡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직 은혜만으로”라는 복음의 핵심이 이런 율법주의적 경향 가운데서 가려지는 것 역시

18) Quoted in Robert Preus, *Justification and Rome* (St. Louis: Concordia Academic Press, 1997), LW 26, 176

神學와 信仰

경계해야만 한다. 대부분 개신교인들의 의식구조 안에는 “은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칭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무언가 첨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와 인간의 응답, 칭의만이 아니라 칭의와 정의, 칭의와 복종, 칭의와 성화, 혹은 칭의와 변화 등 무언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느낀다. 교리적으로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강단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이런 첨가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다. 율법주의의 강점도 있다. 특별히 기적적인 한국교회 성장에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의 강조가 큰 기여를 하였음도 사실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수주일, 십일조, 기도, 전도 등의 신앙생활 등을 무거운 의무로 생각하고, 실패하였을 때는 언제나 형벌, 혹은 심판이 따른 생각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조항들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은혜, 축복, 구원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 성공, 육체적 건강, 정신적 행복, 자아 성취 등의 것으로 설교되고 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성서를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읽는다. 성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살아야 할 법전으로 인식된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성서관이 일반적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관은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정죄와 심판,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눈부신 성장의 역사와 함께 갈등과 분열의 역사라는



부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보수성의 이름으로 위장된 강한 율법주의가 있다.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교리주의를 낳는다. 그리고 그 율법과 교리의 기준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향상시키는 거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쉽다.

유일한 치유는 모든 인간적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인간적 판단과 인간적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칭의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이다.

2 사회 행동주의(민중신학)

남미의 상황에서 발생한 해방신학은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불행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한국 교회와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군부 독재의 강한 리더쉽 가운데서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맛보게 되지만 동시에 외면적 화려함과 발전 이면에는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 정권에 항거하는 지도자 혹은 젊은 학생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낀 일부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은 용감히 일어나 독재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들은 성서와 교회 역사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권력과 지배층에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교회로 하여금 개인주의적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며 사회악에는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신학과 성서 읽기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특별히 바울을 공격하였다.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심 메시지를 변질시켜 자신의 칭의 신학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생각하였다. 루터도 함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루터의 율법과 복음의 교리(복음과 율법이 아닌),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터의 두 왕국의 교리가 기독교 메시지를 왜곡시킨 대표적 오류로 지적되었다. 그들은 신학하기(doing theology)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

신학의 信仰

했다. 정통교리(orthodoxy)에서 정통실천(orthopraxy)으로, 구속으로 창조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국의 역사로, 개인에서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맥락에서 그들은 성서를 정경(the canon)이 아닌 하나의 전거(reference)로 간주하였다.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위협적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용기, 또 그들이 치른 희생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우리 역사의 한 특징의 시점에서 그들은 분명 예언자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작지 않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독교 신앙은 한 특정 상황에만 적합한 인간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게 된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초점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의 구원은 상대화 될 수 있다. 더욱이 신학하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오늘날 해방신학, 혹은 민중신학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적합성을 찾기 쉽지 않게 되었지만, 그들의 신학하기, 그들의 예언자적 메시지는 언제나 중요한 유형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또 사회가 요구할 때 다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 역시 그 장점과 아울러 약점을 가지며, 그 약점의 근원은 반-칭의론적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주의적 문화신학

앞서 언급한 대로 예부터 여러 아시아 종교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가 무엇이나는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인들의 종교적 삶은 정령주의적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 나타난다.¹⁹⁾ 이러한 종교적 다원주의 상황 가운데서 신학자들은 자연 기독교와 한국에 영향을 미쳐 온 다른 종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왔다. 대다수를 이루는 보수적 그룹은 이 주제조차 다루는 것을 회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라는 배타적인 구호에 매달린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국의 기독교는 전통 종교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 때문에 선교 초기부터 일부 학자들은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강한 관심을 보여 왔다. “토착화”라는 단어가 이와 관련해 쓰이고 있지만, 이 토착화와 관련된 신학자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했고, 때로 극단적이었고, 그래서 아직도 쉽지 않은 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별히 최근 다원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이는 오늘날 사회의 경향에 힘입어 한국 신학자들은 한국의 전통 종교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에 보다 진지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교 초기부터 이러한 관심은 주로 감리교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들의 경향을 “자유주의적 문화 신학”이라고 분류한다.²⁰⁾

기독교 내 다른 교파들과의 에큐메니칼 대화 가운데서도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때로 위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 왔다. 대화와 협력 자체가 중시되는 가운데 메시지 자체가 타협의 대상이 되곤 한다. 물론 각 교파의 중심 교리에만 매달리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역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 타협을 위한 타협이 될 때 중심 교리는 소홀히 될 가능성은 커지는 법이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에큐메니칼 대화, 타 종교와의 대화

19) Won Yong Ji, *A History of Lutheranism in Korea*, p 33

20) 유동식, pp 235 참고, 김경재, 『해석학과 종교신학』(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4)

神學의 信仰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장벽을 헐고, 닫힌 문을 열고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분위기 자체가 복음적 신앙의 정체성 자체를 흐리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위한 대화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존 히크(John Hick)은 한 극단의 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주장이 기독교 배타주의의 뿌리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는 온 우주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많은 길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²¹⁾ 타종교에 관심하는 모든 문화적 신학자들이 존 히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께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 대신에 이성, 특정주의적 교리 대신에 보편적인 진리에 관심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화 신학은 본질상 문화로 시작하고, 인간 존재, 그리고 인간의 체험 자체에서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다.

앞서 말한 대로 타 종교들이 한국 기독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의 심성에는 수 천년 누적되어 온 한국의 종교성이 자리잡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발의 역할을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 단지 배타주의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포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복음의 핵심 자체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그 해석의 방식에 대한 많은 논



21) Braaten,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 p 80.

의가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칭의의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이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함이 논자의 의도이다.

4. 영적 열광주의 오순절 성령운동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운동은 교회 성장에, 그리고 신앙인들의 열심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교파를 막론하고 교회들은, 특히 성장을 지향하는 교회들은 은사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적 열성과 연합하여, 한국의 은사 운동은 대단한 폭발력을 보여 왔다. 교회에서는 방언, 치유, 산기도, 부흥회, 금식 등이 어떤 교리적인 혹은 신앙적 단어들보다도 많이 말하여지고 듣게 되는 단어가 되었다. 지원용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신학교 교실에는 칼빈주의가 가르쳐 지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썬빙글리주의, 그리고 심령주의(spiritualism)가 만연하고 있다.”²²⁾ 특별히 한국교회의 은사운동은 한국의 전통종교인 샤머니즘과 종종 연관되어 진다. 샤머니즘의 특성은 열광주의이며, 그러한 자세를 통해 영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독교 영성 가운데서 관심의 초점은 오직 성령에, 그리고 성령체험에 맞추어 지고, 그 증거로서 방언이나 환상과 같은 실제적인 영적 체험을 추구한다. 체험과 느낌이 그들에게 중요한 말이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종교적 체험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느낌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 등을 판단한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형식주의와 교리주의를 거부한다. 이런 것들은 성령과의 진정한 교제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은 물질 보다 우월한 것이며, 영은 물질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 심지어 성서의 문자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성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뜨거운 체험을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22) Won Yong Ji, *A History of Lutheranism in Korea*, p. 61

신앙과 영성

말씀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영적일수록 더욱 신앙이 좋은 것이다. 신앙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것이다. 신앙이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과 동일시된다. 그리고 열성적인, 때로 열광적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신앙이 그들 안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운동이 한국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성령운동을 통해 성장했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열광주의는 교회 안팎으로 많은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 외형적인 열심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오히려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 교회에 쏟아지는 비판들,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느끼는 온갖 비기독교적인 현상들을 여기에서 다 열거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런 부정적인 현상을 모두 열광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정당치 않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형교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교회가 그 가르침과 삶에 있어서 무언가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독교 신앙이 체험과 느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적인 종교로 변하고 있다. 그들은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진정하고도 유일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이 열성적인 심령주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칭의의 중심성의 회복, 그리고 그것의 올바른 이해가 한 지침이 될 것이며, 이것이 한국에서 루터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III. “오직” 원리들(Sola Principles)

전통적으로 칭의의 교리는 소위 “오직 원리들”(Sola Principles)로 설명되어 왔다. 이 “오직”이라는 표현이 종종 일부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여겨져 온 것은 사실이다. 한 카톨릭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믿음만으로는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수 많은 장애들을 제기한다. 물론 오직 믿음만으로는 문제점 중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불필요한 이분법을 창조하려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카톨릭적 방법은 항상 보편적(catholic)이다. 다시 말하면 가능한 한 언제나 배타적인 것보다 포용적인 것을 표방하는 것이 카톨릭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카톨릭 전통은 성서를 전통에 대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sola scriptura), 은혜를 공적에 대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sola gratia). 성서만, 은혜만이 종교개혁 진영의 또 다른 두개의 외침이다.²³⁾

브라텐이 말한 대로 이 작은 단어 “오직”이 생략된다면 우리의 루터교적 제안은 에큐메니칼적으로 보다 손쉬운 것이 될 것이다.²⁴⁾ 그러나 “오직”의 원리들은 칭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열쇠들이다. 매드슨(Meg H. Madson)은 이 오직 원리들을 루터교와 카톨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대화에 있어서 칭의론의 형식으로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의론의 형식과 내용은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루터란에게 있어서 칭의론의 내용(전체적이고 동시적이고 종말론적 교환)은 그 형식을 포함하는데, 그 형식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등과 같이 표현된다. 로마 카톨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칭의의 이해는 공적, 성자들과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원, 희생제사로서의 미사, 교황의 무오

23) Sungenis, p. 605

24) Braaten,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 p 35

神學의 信仰

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²⁵⁾

“오직”들은 칭의론의 형식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것들이 타협된다면 칭의의 내용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일반 개신교도들은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에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서로만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오직 원리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칭의의 교리를 훼손한다. 어떻게? 복음의 기독교 메시지를 하나의 인간적인 종교로 만듦으로써 그렇게 한다. 신학의 특징적 주제는 죄인으로 정죄받은 인간이고 또한 죄된 인간성을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신학에서 이 주제를 벗어난 논의는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며 독이다.²⁶⁾ 신학이 구원론으로 혹은 종교적 인간론의 대체물로 축소될 때 문제점들과 위험한 요소들이 등장한다.²⁷⁾ 오직 원리들은 신학이 인간론이나 인간적 종교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형식이요 구조인 것이다.

1. 오직 은혜

인간의 상식은 은혜에 대한 카톨릭적 이해, 즉 주입된

25) Madson, p 113

26) LW 12 311; quoted in Gerhard Sauter, "God Creating Faith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Lutheran Quarterly* Vol. XI, no1(Spring 1997) 18.

27) *Ibid.*, 21



은혜(*gratia infusa*)의 교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뮐러(John Theodore Müller)는 카톨릭, 열광주의자들, 그리고 합리론자들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는 a) 주입된 은혜, 사랑 등을 칭의의 원인으로 보는 카톨릭에 대항하여; b) 칭의를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시키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혹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마음 속에 내주하여 미치는 성화의 영향력에 근거시키는(오시안더) 모든 열광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그리고 c) 칭의의 법정적 성격을 너무 법적인 것으로 거부하고 칭의를 성령의 성화의 능력을 통해 일어나는 윤리적 과정이나 인간의 변화로 보는 모든 현대적 합리론적 신학자들에 대항하여 주장되어야 한다.²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인간에게 주입되는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은혜를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다. 브라텐은 니그렌(Nygren)의 아가페와 에로스 개념을 빌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가장 교활한 유혹은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행동, 선행과 악행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철회되기도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아가페적 사랑으로서의 은혜의 성서적 개념은 하나님을 흥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기독교를 흥정의 종교로 만드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²⁹⁾

오직 은혜의 빛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혜의 개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은혜는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적 성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

28) John Theodore Mueller, *Christian Dogmatics*(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34), p. 374.

29) Braaten,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 p. 116

신학과 신앙

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종교적이 될 때 대가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상은 종교를 부패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종교적이 되게 만드는 하나의 망상이다.”³⁰⁾

루터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는 비난은 이미 그의 동료 칼슈타트(Karlstadt)와 토마스 뮌저(Thomas Münzer)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칼슈타트는 갱생을 강조했고 뮌저는 선택받은 자들의 새로운 복종을 강조했다. 뮌저에게 있어서 루터는 행함이 없는 신앙만을 요구하는 “꿀같이 달콤한 그리스도”(honey-sweet Christ)를 설교하는 설교자였다. 그러한 “값싼 은혜”는 “신랄한 그리스도”(bitter Christ)와 십자가의 제자직을 회피하는 것이다.³¹⁾ 이러한 주장은 오직 은혜만으로 보다 더 합리적으로 들린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칭의에 성화라는 개념을 첨가하기를 원한다. 요한 웨슬리는 칭의를 재발견한 루터를 찬양한 반면, 루터가 성화를 무시하거나 최소한 성화의 교리에 대해 혼동하였다고 탄식하였다 한다.³²⁾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실제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그의 생애 동안 루터는 언제나 성화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³³⁾ 그러나 오직 은혜 무언가를 첨가하려는, 그래서

30) Braaten, *Justification*, p. 89

31) Carter Lindberg, “Do Lutherans Shout Justification But Whisper Sanctification?” *Lutheran Quarterly* Vol. XIII, no. 1(Spring 1999) 3

32) *Ibid*

33) Gerald Bray, “Justification The Reformers and Recent New Testament Scholarship,” *Churchman* 109, no 2 (1995) 103. cf McGrath, *Iustitia Dei*, p 200.



하나님을 흥정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허락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오직 은혜만므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이 칭의의 원인이다. 믿음이 원인이 아니다. 믿음은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변증서』는 믿음은 그것이 자체로 선행이기 때문에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음을 우리 자신의 일이나 가능성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된 구원은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언제나 신인협동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오직 믿음은 신인협동설의 위험을 경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원리이다. 존 존슨(John Johnson)은 루터교 신앙고백서들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³⁴⁾

A.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의롭게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한다.
2. 믿음은 그 자체로 믿음을 가진 죄인이 행하는 하나의 행위이며 행동이다.
3. 믿음이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행이다
4. 그러나 믿음이 그 자체로 선행이나 덕이기 때문에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5. 믿음은 오직 그것이 신뢰의 대상, 즉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죄사함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34) John F. Johnson, "Justification According to the Augsburg Confession and the Formula of Concord," in H. George Anderson, T. Austin Murphy and Joseph A. Burgess eds.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198-99

神學의 信仰

B.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거듭나게 한다(Regenerates).

- 6. 의롭게 하는 믿음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한다.
- 7.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다른 덕행들을 낳는다.
- 8. 그러나 믿음이 죄인을 새롭게 하거나 사랑과 다른 덕행들을 낳기 때문에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 9.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행함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붙잡고 있는 그 대상,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의롭게 하는 것이다.

C.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의를 위해 전가된다.

- 10. 하나님은 죄인의 믿음을 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한다.
- 11. 이 의는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 12. 이 의는 주입된 본질적인 의나 그리스도의 신성 혹은 인성의 의나 혹은 두 본성의 의가 아니다.
- 13.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의 복종,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다.
- 14. 하나님이 믿음에 전가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이다.
- 15. 믿음은 오직 수단이다. 그것에 의해 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은 의로 간주된다.



요컨대, 믿음은 선행이고 그것은 사랑의 공적들을 낳는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공적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인간적 가능성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칭의의 교리는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 루터교회 미조리 시냇의 신학과 교회 관계 소위원회는 1983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죄인이 오직 믿음만으로 개인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선행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성화된 죄인의 새로워짐의 일부로서 혹은 믿음의 필수불가결한 열매로서 간주한다.”³⁵⁾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또한 개인주의의 비난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개인주의를 가져왔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 개인주의는 계몽주의 이래 줄기차게 이어 온 세속화와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³⁶⁾ 오직 믿음만으로써의 칭의 이해는 개인주의를 증진시키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루터의 칭의론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주체적 자아에 몰두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었다. 루터는 칭의가 개인을 자신의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으로부터 해방해 그의 이웃에게 관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⁷⁾ 브라텐은 개인주의적인(individualistic) 것과 개인적인(personal)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 진리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pro me*)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의 실존적인 초점을 주관주의로 왜곡시키는 구실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내가 들은 복음은 내 속에 정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그리스도 안에

35) Commission on Theology and Church Relations, The Lutheran Church Missouri Synod. “Theses on Justification Commission on Theology and Church Relations, The Lutheran Church Missouri Synod, May 1983.” VII, 30

36) cf. C Villa Vicencio, “Protestantism, Modernity and Justification by Fait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38 3(1985) 369-82.

37) *Ibid.*, 375

神學의 信仰

정초해 있는 것이다. 복음의 나를 위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 안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개인적인 것,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없어서는 안된다.³⁸⁾

우리는 또한 케제만(Ernst Käsemann)과 스투마허(Peter Stuhlmacher) 등이 행한 주석적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칭의론을 종말론적으로 재해석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케제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개인들의 칭의 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³⁹⁾

3. 오직 그리스도

앞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 혹은 성령중심주의가 다원주의와 성령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강조, 그리스도 없는 신 중심주의의 강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독교의 정체성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범신론으로 빠지고 만다. 그리스도 없는 성령은 정령주의, 샤머니즘, 혹은 심령주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 없이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오늘날 신학은 생태학적, 환경의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 문제는 매우 중대한 것임은



38) Braaten, *Justification*, p 95

39) *Ibid.*, p. 11

사실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생태학적 문제를 다룰 때 사람들은 구속보다는 창조에 관심하게 되고 둘을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조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과 분리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비센시오(Vicencio)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루터와 칼빈 모두에게 있어서 창조주는 구속주이고, 구속주는 창조주이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급진적으로 이해한 그들 모두는 인간은 구속주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창조와 구속을 분리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구속된 개인이 창조에 대해 갖는 책임, 그리고 자연히 사회적인 책임에 강조점을 두었다.⁴⁰⁾

최근에 주요 루터교 신학자들은 에큐메니칼 대화 속에서 교회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브라텐은 말하기를:

20세기에 중심 차이점에 관한 질문이 구원론에서 교회에 관한 교리로 옮겨진 듯 하다. ... 그리스도가 교회 앞에 온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로 조정된다. ... 이것은 둘 중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순위의 문제이다. 칭의의 조항이 근거해 있는 오직 그리스도 원리는 이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⁴¹⁾

포르테(Gerhard Forde) 역시 교회론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종말론적 왕국의 무조건적인 약속의 전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며 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⁴²⁾ 신학은 형이상학에 관한 추상적 사색에 관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관심하는 것이다.⁴³⁾

40) Vicencio, 377

41) Braaten, *Justification*, p 9

42) Gerhard O Ford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The Article by which the Church Stands or Falls?" *Dialog* Vol 27:4(1988) 266

43) McGrath, *Studies in Doctrine*, p 461.

神學의 信仰

4. 오직 성서

오직 성서는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의 형식적인 원리라고 일컬어진다. 오직 성서의 원리는 루터의 종교개혁뿐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여러 다양한 다른 종교개혁 운동들의 기초가 되었고, 또 존중되고 있다. 교회 전통을 성서와 동등한 또 다른 규범으로 만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이 오직 성서의 원리는 전통, 이성과 같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계시 앞에서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오직 성서의 원리는 칭의의 교리의 필수 불가결한 형식이다. 그러나 개신교 진영 내에서도 이 원리는 종종 무시되어 왔고 또 왜곡되어 왔다. 이러한 일은 인간이 그리스도 앞에 무언가 인간적인 것들을 놓고 싶어 할 때마다 일어난다. 오직 성서만의 원리의 중심점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자는 데 있다. 이 원리 가운데서 인간은 단지 죄인으로 남는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에 의해, 오직 믿음만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이라는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 성서주의, 교리주의, 지성주의 모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를 첨가하려 함으로 오직 성서만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예들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루터의 중세 신학과의 단절은 성서의 다중적 의미를 단순화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 “성서



의 권위는 법적인 종류의 권위가 아니다. 성서는 법적 교리, 오류 없는 보고서 혹은 경건의 자료를 담은 책이 아니다.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⁴⁴⁾ 교회가 성서의 권위를 고백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성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러나 성서주의는 오직 성서 자신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까지 높임으로 이 원리를 왜곡시킨다.⁴⁵⁾ 그리고 계몽주의와 더불어 “자연”과 “이성”과 같은 범주들이 성서의 권위의 근거를 허물고 자유주의와 역사 비평주의 길을 포장하였다. 브라텐에 따르면 이 새 비평주의가 전통적 이해와 세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켰다고 관찰한다.⁴⁶⁾ 첫째, 복음서들의 비평은 성서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에 충격을 주었다. 둘째로, 초대 기독교 내에 서로 다르고 경쟁적인 신학들이 있었다는 것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도전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비평가들은 성서의 문서들이 유일한 성격의 것이 아니며, 그들 환경의 종교적 사상들을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역사 비평의 방법의 근본 문제는 그 방법이 인간의 철학적인 전제들로서 시작한다는 것, 그럼으로 인간의 모든 전제들을 깨뜨리며 위에서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붙잡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프로이스(Robert Preus)는 헬싱키에서의 루터란의 항복은 당시 점잖게 곁에 서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역사 비평적 방법의 주석과 현대성을 향한 항복이었다고 관찰한다.⁴⁷⁾

오직 성서의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의 원리와 분리될 수 없다. 기독교 없이 성서는 단혀진 책일 수밖에 없다. 성서의 기독교적 내용은 신학에서 규범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성서의 참된 해석은 성령에 의해 가능한 믿음의 선물이다.

44) Braaten,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 p 3

45) *Ibid* p 17

46) *Ibid*, p. 12f

47) Preus, p. 21

神學과 信仰

“자연”과 “이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오직 성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성과의 단절을 선언한다. 그리고 인간 간의 감각적인 증거들을 반대한다. 참으로 이 원리는 “지성의 희생”(sacrificium intellectus)을 요구한다. 스캐어(David Scaer)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오직 성서의 원리는 성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해석자의 체험과 이성은 사용될 수 없고, 오직 성서 자체의 단순한 의미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으로 성서의 단순한 의미가 가려져서는 안된다. 신학자는 그의 이성과 체험을 붙잡아 매두고 오직 성서에 굴복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⁴⁸⁾

IV. 결론

1991년 독일 노이엔데텔라우에서 루터교회의 의미에서의 내외적 선교를 위한 협회(The Society for Inner and External Missions in the Sense of the Lutheran Church)는 “칭의와 세상을 위한 책임성”에 대한 한 국제적 협의를 후원하였다. 루터교의 칭의 교리의 종합적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제가 제기되었다.⁴⁹⁾

48) David Scaer, “How Do Lutheran Theologians approach the doing theology today?” in John D. Woodbridge ed. *Doing theology in today's world, essays in honor of Kenneth S. Kantzer*(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210

49) Wolfhart Schlichting, “Justifica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Lutheran Quarterly* Vol VII, no 1(Spring 1993) · 19-44



이 세상 가운데서의 구원의 소망들을 충족하고자 소망하였던, 그리고 그 꿈들(Utopias)을 실현하고자 원했던 사회적 정치적 행동주의가 실패하고 신망을 잃게 된 이후에,

.....
 우리는 항상 그러하듯이 칭의의 메시지가 전세계적인 방향 재정립의 이 역사적 시점에서 명백히 해방하고 치유하는 말씀으로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지 않는지 고려해야만 한다.

믿음의 조항의 재발견은 루터교로 하여금 현재 역사적인 격변의 시대에 모든 기독교계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루터교 교리에 따르면 우리는 그 믿음의 조항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을 떠날 수 없는 것이며, 그 조항은 이 세상을 위한 책임성을 위해 자유롭게 하는 힘을 포함하는 것이다.

칭의의 교리는 과거에 묻혀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직 16세기에만 적합성을 갖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교리는 아무리 재촉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는다. 만일 이 교리가 전복되거나 사라진다면, 진리의 모든 지식이 동시에 상실될 것이다. 만일 이 교리가 번성한다면, 그 때 모든 선한 것들, 예를 들어 종교, 참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삶과 사물의 상황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 등이 번성할 것이다.⁵⁰⁾

우리의 상황은 물론 루터의 시대와는 다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마도 칭의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적용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많은 신학자들은 칭의 교리의 오늘날 세상에 대한 적합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칼 브라텐은 그 교리를 설교, 목회적 돌봄과 카운셀링에 적용시키고 칭의의 교리를 근거로 두 왕국의 교리를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⁵¹⁾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50) Quoted in Prues, p 17, E Gal, 10, 137

51) Braaten, *Justification*, pp 143ff

신학의 신앙

그 교리의 현대적 의미를 추구하며, 그것을 실존적 차원, 인격적 차원,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 찾고 있다.⁵²⁾ 지원용은 “칭의와 세상을 위한 책임성”에 대한 국제적 협의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윤리와 설교와 카운셀링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영역에서도 칭의의 의미를 말한다.⁵³⁾ 이와 관련해 지원용은 한국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종교적 다원주의, 개신교 진영 내에서의 혼란, 루터교 자체 안에서의 분열 한 가운데서 우리 루터란들은 불가피하게 자기 정체성의 위기에, 그리고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진 교회로서의 우리의 소명을 상실할 위험성에 직면한다. ... 칭의 교리는 루터란들이 함께 서 있는 근거이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세계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공동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근거이다. 칭의는 루터란 증거의 게임에 있어서 으뜸패(trump card), 혹은 최후의 수단과 같은 것이다. 더욱이 칭의는 세상을 향해 이것이 이 시대에 루터교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라고 증거한다.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⁵⁴⁾

다시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시대를 위해 칭의를 적합한 것으로 만들려는 이 노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칭의의 중심성이 상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

52) McGrath, *Studies in Doctrine*, pp. 408ff.

53) Won Yong Ji, “To be Lutheran: Lutheran Identity and Task in Light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Concordia Journal*(October 1992) 315-337

54) *Ibid.* 330.



이야 한다. 우리가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위험은 항상 잠재해 있다. 칭의 교리는 중심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다른 교리들과 교회 관습들을 위한 규범과 기준으로 역할해야 한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칭의의 교리로부터 벗어나려는 유혹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그리고 이 지속적인 개혁은 칭의의 중심성이 회복되고 유지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루터란이 된다는 것은 신앙고백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루터란의 신앙고백은 다름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고 오직 성서만의 권위를 근거로 주어지는 칭의의 메시지를 고백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루터교의 신앙고백은 루터교라는 이름의 한 교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은 성서를 위한 중요한 해석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전체 교회와 우리 시대와 세계를 위해 의미를 갖는다. 우리 시대와 지금의 세계와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렌드(Arand)는 루터교 신앙고백의 해석학적 역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루터교 신앙고백서들을 하나의 해석학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서 연구를 위한 안내나 지도로서의 고백서들의 지속적인 적합성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한 기능은 성서를 현대적 질문의 빛에서 해석하는 과제는 종교개혁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며, 성서의 내용은 16세기 종교개혁과 더불어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소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신앙고백서들의 해석학적 성격은 교회로 하여금 그 시대의 필요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⁵⁵⁾

55) Charles P. Arand, *Testing the Boundaries: Windows to Lutheran Identity*(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5), p 266

神學與信仰

참고문헌

Anderson, H. George, Murphy, T. Austin; Burgess, Joseph A. eds.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Arand, Charles P. *Testing the Boundaries: Windows to Lutheran Identity*.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5.

Braaten, Carl E. *Justification: The Article by which the Church Stands or Fal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_____. *Principles of Lutheran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Chemnitz, Martin. *Justification: The Chief Article of Christian Doctrine as Expounded in Loci Theologici*. Tr. and ed. by J.A.O. Preus Delpha Holleque Preu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85.

Hamann, Henry. *Justification by Faith in Modern Theology*.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7.

Ji, Won Yong. *A History of Lutheranism in Korea: A Personal Account*. Seoul: Concordia Sa, 1988.

Leith, John H. ed. *Creeeds of the Churches: A Reader in*



- Christian Doctrine from the Bible to the Present*. Third Edition: Louisville: John Know Press, 1982.
- McGrath, Alister E.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Studies in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 Mueller, John Theodore. *Christian Dogmatic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34.
- Preus, Robert. *Justification and Rome*. St. Louis: Concordia Academic Press, 1997.
- Sungenis, Robert A. *Not By Faith Alone: The Biblical Evidence for the Catholic Doctrine of Justification*. Santa Barbara: Queenship Publishing Company, 1996.
- Tappert, Theodore G. Tappert Theodore G.(tr. and ed.) *The Book of Concord: The Confessions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9.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 한국교회사학 연구원(편). 『한국기독교 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김경재. 『해석학과 종교신학』(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4).
- Bertram, Robert W. “Recent Lutheran Theologies on Justification by Faith: A Sampling,” in Anderson, H. George, Murphy, T. Austin, Burgess Joseph A. eds.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241-255.
- Bray, Gerald. “Justification: The Reformers and Recent New Testament

神學與信仰

- Scholarship," *Churchman* 109, no. 2(1995): 102-56.
- Commission on Theology and Church Relations, The Lutheran Church Missouri Synod. "Theses on Justification: Commission on Theology and Church Relations, The Lutheran Church Missouri Synod, May 1983."
- Forde, Gerhard O.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The Article by which the Church Stands or Falls?" *Dialog* Vol. 27: 4(1988): 260-67.
- Gatta, Julia.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Classical Concerns and Contemporary Context,"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3:3(Summer 1986): 513-17.
- Hunsinger, George. "What Karl Barth Learned from Martin Luther," *Lutheran Quarterly* Vol. XIII, no. 2 (Summer 1999): 125-56.
- Ji, Won Yong. "Witnessing to Christ in a Pluralistic Age: Theological Principle and Practice," *Concordia Journal*(July 1990): 231-244.
- _____. "To be Lutheran: Lutheran Identity and Task in Light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Concordia Journal* (October 1992): 315-337.
- Johnson, John F. "Justification According to the Augsburg Confession and the Formula of Concord," in Anderson, H. George, Murphy, T. Austin, Burgess Joseph A. eds.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185-99.
- Lindberg, Carter. "Do Lutherans Shout Justification But Whisper Sanctification?" *Lutheran Quarterly* Vol. XIII, no. 1(Spring 1999): 1-20.
- Lull, Timothy 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Today," *Dialog* Vol. 27:4 (1988): 250-59.
- Madson, Meg H. "The Incredible Shrinking Doctrine of Justification," *Lutheran Quarterly* Vol. XI, no. 1(1997): 103-18.
- Sauter, Gerhard. "God Creating Faith.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Lutheran Quarterly* Vol. XI, no. 1(Spring 1997): 17-101.
- Scaer, David. "How Do Lutheran Theologians approach the doing theology today?" in Woodbridge, John D. ed. *Doing theology in today's world, essays in honor of Kenneth S. Kantzer*(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197-225.
- Schlichting, Wolfhart. "Justifica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Lutheran Quarterly* Vol. VII, no. 1(Spring 1993): 19-44.
- Vicencio, C. Villa. "Protestantism, Modernity and Justification by Fait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38:3(1985): 369-82.